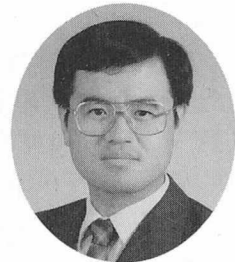


# '96년도 국내외 경제전망



김 호 서기관  
(재정경제원 경제조사과)

## 1. 머리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올해년(乙亥年)이 지나고 희망의 병자년(丙子年) 아침이 밝았다. 지난해는 30여년만에 풀 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실시되어 이땅에 주민자치의 이정표를 세웠고,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사건, 12.12 및 5.18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정치·사회적으로 크나큰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해였다. 경제적으로 보면 경기호황속에서도 중견·중소기업의 부도(不渡)가 급증하여 이른바 경기양극화(景氣兩極化)가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사상 처음으로 내노라하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조사를 받는 등 다짐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을 겪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경제는 9%를 상회하는 고성장의 경기활황이 이어졌고 국민소득 1만불과 수출 1,000억불이 달성되어 바야흐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계기를 만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하에서는 지난해 우리경제의 운영실적을 간

단히 평가해 보고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96년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95년도 경제운영실적 평가

95년중 우리경제는 엔저(円低), 선진국 경기회복 등 해외여건호조와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왕성한 수출과 설비투자에 힘입어 지난 '94년의 8.4% 성장에 이어 '95 3/4분기까지 성장률이 10%에 근접하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연간으로도 9%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높은 성장과 활발한 생산활동을 반영하여 실업률도 완전고용(完全雇傭)수준인 2% 내외의 사상 최저수준을 시현하였다.

〈표1〉 주요경제지표

	'94	'95.1/4	2/4	3/4	4/4
경제성장률	8.4	9.9	9.7	9.9	-
수출증가율	16.8	31.7	34.6	36.6	30.3
실업률	2.4	2.4	1.9	1.9	1.9

경기가 좋으면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오르게 마련인데, 지난해에는 소비자 물가가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 유통구조의 혁신, 수입확대 등으로

'86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4%대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부동산가격은 매우 안정되어 우리 경제가 상당히 건전한 상태를 보였다.

〈표2〉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

(전년말대비,%)

	87.11	90.11	92.11	93.11	94.11	95.11
소비자물가	5.2	8.7	4.2	5.2	5.5	4.2

그러나,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따라서 증가하는 우리의 산업구조상의 특성으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94년(45.3억불)의 2배 가까이 확대('95.10월까지 82억불)되었고, 전반적인 경기회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집약적 건설업, 소규모 유통업 등 내수업종의 경기는 부진하여 소위 경기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노정(露呈)되었다.

이상과 같이 '95년 우리경제는 해외 여건호조와 더불어 신정부(新政府) 출범이후 추진한 각종 경제개혁 및 개방화의 효과가 경제 각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속의 높은 성장이라는 경기회황을 누렸으나 부분적으로는 영세·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각종 사고·사건으로 악화되는 등 체감경기(體感景氣)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96년도 국내외 경제전망

#### 가. 세계 경제전망

94년부터 회복세에 들어간 세계 경제는 금년에도 3~4%내외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先進國)은 미국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유럽연합(EU)과 일본경제가 회복되면서 '95년과 비슷한 2.5%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출의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6% 이상의 고성장추세



금년에는 수출이 여전히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에 따른 성장 둔화 효과를 소비와 SOC 투자 등 건설부문에서 뒷받침해 줌에 따라 연간 7.5% 내외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3〉 세계경제성장 전망

	세계전체	선진국	(미국)	(일본)	개도국
'95년	3.8	2.5	2.9	0.5	6.1
'96년	4.1	2.4	2.0	2.2	6.2

자료 : IMF(95.10),%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무역자유화 촉진의 영향으로 95년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였던 세계교역량(交易量)은 쌍무간 통상 마찰의 심화, 환율불안정,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선진국간 무역둔화 등으로 약간 낮아진 6%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95년에 하향안정세를 보인 국제금리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미국의 금리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현재의 안정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환율은 불확실요인이 있으나 「엔」화는 선진국들의 공조개입, 일본의 「엔」화 약세유도 등으로 달러당 100~105「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본궤도 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으로 금융,

〈표4〉 세계경제여건 전망

	93	94	95	96
교역량(%)	3.9	8.7	7.9	6.5
유가(\$/Bℓ)	16.1	15.5	16.7	15.5
(증가율,%)	(△11.5)	(△3.7)	(7.7)	(△7.2)
국제금리(%)	3.3	4.7	6.0	5.6
「엔」 환율(¥\$) <sup>2</sup>	111.2	102.3	93.6	104.0

자료 : IMF(95.10)

주1, 2」는 WEFA, World Economic Outlook(95.11), 국제금리는 Libor 3개월물

통신, 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로 개방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경제는 금년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제원자재가격도 안정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외여건은 호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가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인력 및 서비스의 질(質), 사회간접자본(SOC) 등 비교역부문(非交易部門)에서의 효율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나. 국내 경제전망

금년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그동안의 경기상승세가 마감되고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수준의 안정성장 국면으로 이행할 전망이다. 즉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완만한 하강국면으로 연착륙(軟着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여전히 두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에 따른 성장둔화 효과를 소비와 SOC투자 등 건설부문에서 뒷받침해 줌에 따라 우리경제는 연간으로 7.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투자와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을 상회하여 전체 성장을 주도하는 건설한 패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에 있었던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등으로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

되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엔」화 환율, 총선(總選) 실시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경기후퇴(景氣後退)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수입개방 및 유통혁신 촉진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5%미만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후행적인 소비증대, 총선 실시, 농산물의 해거리 가능성 등으로 지난해보다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하겠다. 지난해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경상수지 적자(赤字)는 수입이 둔화되면서 무역수지(貿易收支) 개선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표5〉 국내경제전망

	'94	'95	KDI	한은	민간연구소
국내총생산(GDP)	8.4	9.3	7.5	7.4	7.3~7.7
민간소비	7.4	8.2	7.2	7.5	7.2~8.4
설비투자	23.3	19내외	9.2	7.2	5.4~10.1
건설투자	4.6	9내외	7.5	7.7	5.8~9.6
수출(통관기준)	16.8	32수준	14.3 <sup>1</sup>	15.6 <sup>1</sup>	11.1~20.3
수입(통관기준)	22.1	33수준	11.8 <sup>1</sup>	13.4 <sup>1</sup>	9.3~17.3
소비자물가	6.2	4.5수준	4.3	4.8	3.5~5.8

주1」 국제수지 기준, KDI, 한은, 민간연구소는 '96년도 전망

한편, WTO체제출범과 규제완화 추진 등으로 대내외 자유화 및 개방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96년 이후 OECD가입, 외환 및 자본자유화 촉진으로 금융, 건설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문간 성장격차의 지속으로 중소·영세사업자 및 농어촌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정치·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OECD가입 등을 계기로 그동안 큰 어려움이 없었던 대기업도 개방부담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실시한 각종 개혁조치의 정착과 더불어 지난날 만연되었던 정경유착(政經癒着)을 단절하여 투명(透明)하고 공정(公正)한 경쟁질서에 입격한 깨끗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共感帶)가 폭 넓게 확산되고, 농 어민·영세민·장애자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개혁(生活改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96년 국내경제는 적정성장 속에 경상수지개선이라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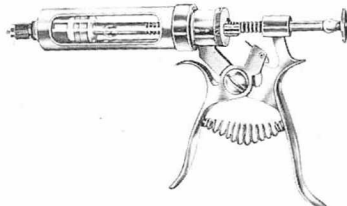
상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부문별로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경제안정기조(經濟安定基調)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를 연착륙시키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경기양극화 해소 등 경제내부의 구조적 문제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경제의 미래는 국민전체의 총합된 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기업·국민 각계층(各界階層)이 거센 대외개방의 파고에 잘 대처하여 선진된 세계 속의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다 시한번 매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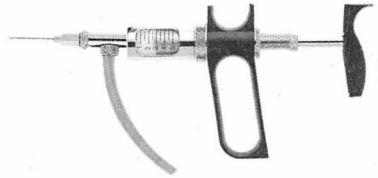
##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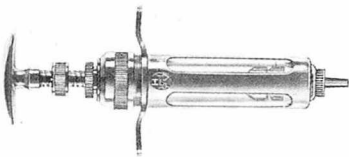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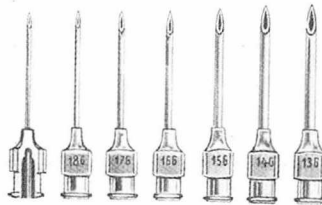
②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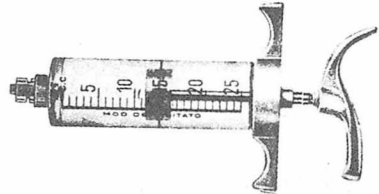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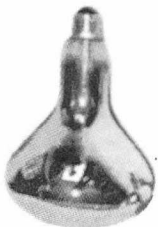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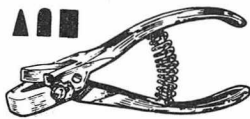
⑤ HENKE 주사침



⑥ P.V.C 주사기(반영구)



⑦ 적외선전구(수입품)



⑧ 이각기(귀절단)

**KW** 경 화 축 산

주소 : 서울·마포구 동교동 164-31  
 ☎ 338-2548, 7013, 338-5510, (야간) 749-1465  
 FAX : (02)338-1020, (0349)32-1787